

# 하시모토, 구마모토, 임진왜란



권성하  
대전일보 정치행정부  
차장

1년 전 일이다. 지인으로부터 일본의 분권 논의를 듣다 보니 흥미로운 사람이 있었다. 하시모토 토루(橋下 徹) 오사카부 전 지사였다. 그는 현 오사카 시 시장이며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이다. 차기 총리 감으로 거론될 정도다.

하시모토는 꽤 재미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사실 그는 일본 정계의 엘리트가 아니다. 부라쿠민(部落民·일본 최하위 계층) 마을에서 유소년기를 보냈고, 야구자였던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스관을 입에 물고 자살했다고 한다. 그가 주목받게 된 것은 변호사 시절 한국의 '솔로몬의 선택' 같은 법률상담을 하는 예능 코너에 출연하면서다. 거침없는 입담과 명쾌한 진행으로 인기를 모았고, 지난 2008년 최연소인 38세에 오사카부 지사로 당선되며 화제를 모았다. 하시모토는 당선 직후 개혁을 추진한다. 공무원 임금과 각종 단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오사카부를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며 능력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1969년생이니 이제 마흔 둘이다.

지인을 통해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의 오사카 개혁이 일본 개혁으로 진화하고, 그가 만든 '유신정치숙(塾)'에 수 천 명이 몰린 이유가 궁금했다. 무엇보다 그의 '유신팔책(維新八策)'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사카모토 료마의 '선중팔책(船中八策)'의 21세기 버전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마침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가 분권 혁신을 주창할 때였고, 하시모토의 유신팔책에 '도주제(道州制) 도입'과 '소비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 폐지'가 눈에 들어 온 탓도 있었다. 실제로 1도(都), 1도(道), 2부(府), 43개 현(縣)을 몇 개의 도주로 광역화하려는 것은 민선 5기 안 지사의 분권혁신, 충남과 대전, 충북을 묶는 500만 분권 거버넌스와의 유사했다.

하시모토는 지방 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의 하청관계를 청산하고, 자립 경영

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민당을 뛰쳐나와 ‘오사카유신회’라는 지방 정당을 만들었다.

그의 과단성에 끌렸다. 하지만 호감은 딱 거기까지였다. 그를 알아 갈수록 모했다. 하시모토는 천황제 폐지와 연결될 수 있는 참의원 제도 폐지와 수상 공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마치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곳곳에서 모순을 드러냈다. 각급 학교에서 기미가요를 찬양하고, 교사의 전원 기립, 전원 제창을 의무로 하는 기미가요 조례 역시 그의 작품이다.

사전 인터뷰 내용에 ‘기미가요가 천황 만세 노래인데 당신이 정말로 천황제를 폐지하자고 한 장본인이 맞는가?’라는 질문지를 담아 보냈다. 인터뷰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를 다시 접한 건 지난 8월 21일이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하시모토가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놔야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의 망언은 종군위안소 설치·관리에 옛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고노담화’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하시모토의 오사카유신회가 총선용으로 내 건 공약은 한 술 더 떴다.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자력으로 수호하는 방위력과 정책의 정비를 명시했고, 전쟁 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을 쉽게 하기 위해 헌법개정 발의 요건인 의원 정수의 ‘3분의 2’를 ‘2분의 1’로 완화했다. 오사카유신회가 내 건 공약의 토대는 하시모토의 유신팔책이

다. 재미난 점은 유신팔책의 원전이라고 할 선종팔책이 첫 일성에서 ‘천황에게 막부의 통치권을 반납’ 토록 했다는 점이다. 료마의 선종팔책은 1867년 11월 9일 도쿠가와 막부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메이지 일왕에게 통치권을 반납하는 대정봉환(大政奉還)으로 이어지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함께 제국주의의 길을 간다. 이후 역사는 한국에게 비극이 됐다.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과거사 부정 등 일본의 우경화는 이제 비켜 갈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됐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에서 읽을 수 있듯 일본의 우경화는 중앙과 지방이 결코 다르지 않다.

충남도와 29년 우정을 쌓았다고 믿었던 구마모토현도 마찬가지다. 구마모토 소재 3개 중학교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이쿠호사관 공민교과서를 부교재로 채택했고, 구마모토현은 이들 학교의 부교재 구입 예산을 지원했다. 충남도가 공식적인 항의와 함께 불채택을 주문했지만 “한 번 검토는 해 보겠다”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하시모토와 오사카유신회는 그들의 정치스쿨인 ‘유신정치숙’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400명을 출마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2, 제3의 하시모토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가 임진년이다. 420년 만에 왜(倭)가 다시 준동하고 있다. 문득, 하시모토와 구마모토현이 개그콘서트의 ‘가루상’과 오버랩된다. “사람이 아니무니다. 대답이 아니무니다.”

## 눈 뜨고, 귀 열고, 입 열면



이용웅  
연합뉴스  
前.충청본부장

눈 뜨면 볼 것도, 보이는 것도 많다. 귀 열면 들을 것도, 들리는 것도 많다. 또 입 열면 할 말도,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나온다. 보고 보인다고 해서 다 정확한 게 아니고, 듣고 들린다 해서 다 안다 할 수 없듯 나온 말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다.

눈이 아무리 밝다 해도 천리 먼 곳의 사물은 보지 못하듯 귀가 아무리 밝아도 천리 먼 곳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말솜씨가 좋다는 소진장의(蘇秦張儀)라 해도 마음의 문을 닫은 이와는 소통할 수 없다.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 해서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입을 열지 않는다 해서 병어리인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보편적 속성 중 하나는 간사(奸邪)함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말도 하고 싶은 이외만 하려 든다. 일상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들어야 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와 상충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눈을 감고, 듣고 싶지 않은 것에 귀를 막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에게 입을 다문다.

하나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이란 속담이 있듯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고, 병어리가 되고, 장님이 되는 이들도 있다. 그러는 것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과년한 딸을 둔 집이 있었는데 마침 혼인 말이 나와 딸을 여의게 됐다. 부모는 느지막에 시집가는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택에 가면 무슨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무슨 일을 보아도 못 본 척하고, 무슨 말이건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일러 보낸다. 부모 생각엔 딸이 그렇게 해야 탈 없이 시집살이를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부모의 훈계를 마음에 새긴 딸은 시집가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반면

시집 식구들은 새 며느리가 귀머거리에, 병어리에, 눈 뜨고도 못 보는 장님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가엾기만 했던 며느리가 차츰 바보 천치로 보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병신 며느리와 사는 것은 집안 망신이라며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며느리의 처지를 동정해 온 시아버지는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늘 며느리를 감싸고 변호했지만 가족들이 반대하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가마를 타고 시아버지를 따라 친정으로 향한 며느리는 너무나 기가 막혔다. 출가외인으로 평생을 시집에서 살다 죽어야 도리인데 친정으로 쫓겨 온다는 게 가문의 수치요 창피였기 때문이다. 시집살이를 잘 하려고 3년 동안 귀머거리, 병어리, 장님으로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마침내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흐르는 눈물을 가눌 수 없었다.

이윽고 친정 마을 가까이에 이르렀을 무렵 일행의 발소리에 놀란 꿩 한 마리가 갑자기 숲속에서 푸드덕 하고 날아올랐다. 이 광경을 본 며느리가 “어머, 아버님, 저기 우리 산에서 꿩이 날아 갑니다”고 했다. 이 말은 들은 시아버지는 놀랐고도 반가웠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병어리일 수야 있겠는가”하며 기뻐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꿩이 나는 것을 보았으니 장님이 아니요, 꿩이 나는 소리를 들었으니 귀머거리도 아니요, 말문이 터졌으니 병어리도 아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 꿩을

잡아 오게 하고 가마채를 돌려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도 며느리를 다시 맞이했다.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구박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고, 병어리가 되고, 눈 뜨고 장님이 된 며느리가 어디 있겠는가? 설사 있다 해도 예나 지금이나 바보 천치요 병신 취급 받기 십상이다.

보기 싫다 해도 봐야 할 것은 봐야 하고, 듣기 싫다 해도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하고, 말하기 싫다 해도 말해야 할 것은 말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그러나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고, 병어리가 되고, 장님이 되고, 바보가 되는 것 또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이다.

누구 하나 오늘과 내일의 근심과 걱정, 불안에서 자유로운 이는 없다. 그래서 때로는 눈 뜨고, 귀 열고, 입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